

---

# 방송프로그램제작에 있어 1인 제작시스템 변화

## On Production System by One-Person Production System in Broadcasting Program Production

---

이종탁, 곽훈성

전북대학교 대학원 영상공학과

Jong-Tak Lee(photo042@hanmail.net), Hoon-Sung Kwak(hskwak@chonbuk.ac.kr)

---

### 요약

1인 제작시스템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혼자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섭외, 구성, 촬영, 편집까지 1인이 담당하는 제작 시스템을 말한다. 방송프로그램 제작 현실에 있어 6mm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한 1인 제작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송사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이러한 변화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다인(多人) 제작시스템과 1인 제작시스템의 장·단점을 파악해보고 방송계에서 프로그램 제작 방식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6mm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한 프로그램 제작의 변화를 분석해 보았다. 6mm 제작 프로그램의 장점으로는 제작의 기동성과 취재원과의 밀착성, 다양한 소재의 확대, 제작비 절감 등을 꼽을 수 있으나, 프로그램의 완성도 저하 및 영상의 불안정성 등을 단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현재에 이르러 방송프로그램의 외주제작 비율의 확대로 인해 독립제작사의 수가 급증하였으며, 제작비 절감과 프로그램의 다양성 측면에서 1인 제작시스템을 이용한 프로그램 편성이 늘어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 중심어 : | 1인 제작시스템 | 6mm 디지털카메라 | 비디오저널리스트 | VJ |

### Abstract

The one-person producing system is that planning program, arrangements, composition, taking pictures and edition are all done by only one person. In the reality of the producing systems of the broadcasting programs, as the number of the broadcasting stations, which apply one-person producing systems, is gradually increasing, the study on the change is going on. In this study I grasped the merits and demerits of both systems ; multi men producing system and one-person producing system. And then I analyzed the sudden change of the method of the producing programs into one using the 6mm digital camera. The merits of producing programs by means of the 6mm digital cameras are following ; the mobility of producing programs, a close contact with the source, the enlargement of the diversity of the contents and cutting down expenses. The demerits of it are following ; a lowering of the degree of completion and the unstableness of an image. Nowadays because of the enlargement of the rate of the outsourcing production, the number of the independent production studios rapidly increased. From the viewpoint of cutting down expenses and the diversity of contents, the number of broadcasting programs produced by means of one-person producing broadcasting program system is increasing.

■ keyword : | One-Person Production System | 6mm Digital Camera | Video Journalist | VJ |

## I. 서론

방송과 통신의 융합형태는 케이블, 위성, 인터넷 등이 융합하는 '네트워크 융합', 디지털 기술에서 비롯된 '기술의 융합', 멀티미디어 단말기로 대변되는 '기기의 융합', 방송과 통신서비스의 융합과 같은 '서비스의 융합', 방송사업자와 통신사업자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사업자의 융합', 사업자들이 상호 경영전략에 따라 기능적으로 협력하는 '기능적 융합' 등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1].

케이블TV가 도입된 지 10여년, 위성방송이 도입된 지 4년 만에, DMB, IPTV, WiBro 등 방송통신융합 플랫폼의 도입은 한정된 주파수의 개념이 사라져가는 2차 변혁기를 맞이하고 있다[2].

방송은 디지털화와 통신과의 융합에 따라 기존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시스템 환경에서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에 대한 변화를 요구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프로그램제작의 전 과정에 대한 기술적·구조적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3].

또한, 방송영상 콘텐츠시장은 케이블 TV 시장의 MPP(복수방송채널사업자)나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 등 수평적으로 통합한 사업자가 등장함으로써, 방송영상 콘텐츠 유통시장에서의 지상파 방송 3사의 시장의 집중이 점진적이거나 완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2].

현재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디지털이라는 형태의 고성능 소형 장비들이 개발됨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촬영과 편집, 그리고 송신이 가능하여 이로 인한 1인 제작시스템이 가능해졌고, 방송 제작 현실에 있어 경제적인 측면에서나 내용의 다양성을 위해서 1인 제작시스템을 운영하는 방송사가 점차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다.

따라서, 지금의 다인(多人) 제작 시스템의 상황, 즉 메이저 방송제작에서 향후 1인 제작시스템, 즉 독립제작 및 외주제작의 형태로 발전될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으며, 경제적인 측면과 프로그램의 다양성, 다(多)채널로 인한 많은 프로그램의 수급문제 등으로 인해 1인 제작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對頭)되지만, 아울러 1인

제작시스템에서 갖추어야 할 문제점으로 인식되는 여러 가지를 먼저 해결해야 만이 1인 제작시스템의 올바른 정착 및 프로그램 참여의 다양성이 이루어질 것이다.

본 연구는 시사·교양·다큐 프로그램의 제작 분야에 있어 1인 제작시스템으로의 변화로 한정하고자 하며, 6mm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한 방송프로그램 제작이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으며, 방송영상 제작에 있어 1인 제작시스템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 II. 본론

### 1. 1인 제작시스템 정의

1인 제작시스템이란 기존의 최소 4~5명의 스태프(프로듀서, 카메라, 카메라 보조, 조명, 구성 작가, 운전 등)이 한 조를 이루어 프로그램을 제작 방식에서 탈피, 1인이 기획에서 자료 조사, 연출, 촬영, 진행, 편집 등 전 과정을 혼자 해결해 나가며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제작 방식은 자연스럽게 촬영스태프의 감소 효과와 ENG카메라와 대비되는 장시간의 촬영이나 기동성을 요하는 촬영분 및 대상의 밀착취재가 가능해지며, 1회 제작비의 단가를 크게 절감시키는 효과를 가져 오게 되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1인을 비디오저널리스트라고 하는데, 비디오저널리즘의 전도사라고 일컬어지는 마이클 로젠블럼은 비디오저널리스트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비디오저널리스트는 인쇄 미디어 저널리스트가 연필과 공책을 사용하는 것처럼 소형의 비디오카메라를 사용한다. 인터뷰나 취재 기자의 인상, 그리고 영상을 단속적으로 기록하기 위해서다. 인쇄 미디어의 저널리스트가 취재를 위해 항상 연필과 종이를 가지고 다니는 것처럼 비디오저널리스트도 소형 카메라를 항상 휴대하고 다닌다. 비디오저널리스트는 1일 24시간 카메라를 손에 쥐고 있는 것이다. 하나의 이야기를 취재할 때는 혼자서 비디오를 가지고 인터뷰하고 촬영한다[4].”

한국에서 1인 제작시스템의 방송프로그램이 처음 선보인 것은 1996년 다큐멘터리 전문 채널인 Q채널이 제작·방영한 '아시아 리포트'라 할 수 있다. 6mm 디지털 카메라가 개발된 직후 기획되어 당시 방송 경력 5년 차 이상의 PD들에게 디지털 비디오카메라를 지급, 아시아 각국을 취재하여 방송가의 VJ열풍을 가져오는 계기를 만들었으며, 현재 한국에서도 VJ라 일컫는 많은 비디오 저널리스트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5].

## 2. 1인 제작시스템의 등장

1인 제작 시스템은 1992년 미국 뉴욕의 지역 케이블 채널 방송사인 '뉴욕 1'에서 최초 시도했다. 타임워너가 설립한 '뉴욕 1'의 기자들은 혼자서 8mm 비디오카메라를 들고 지역의 뉴스들을 찾아 기동성있게 밀착 취재함으로써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줬다[4].

한국에서 처음 비디오저널리스트로 활동한 안해룡씨가 분석한 '뉴욕 1'의 성공에는 몇 가지 특징적인 요인이 있다[6].

첫째, 기자들의 지역 전문성이다. 다(多)인종이 공존하는 뉴욕이라는 지역의 특수성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인종, 출신 지역을 고려한 기자들의 배치이다. 지역 정서를 잘 파악하고 있는 기자가 정보의 수집과 취재원과의 밀착, 기동성 등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기자들의 전문화이다. 기자들의 전문성을 최대한 고려해 2~3주마다 리포트를 제작함으로써 취재를 보다 심층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이다.

세 번째로는 제작 시스템의 디지털화다. 신속한 방송과 관리 인원의 최소화로 운영 경비의 절감을 위해서다. 또한 4~5명이 함께 하던 프로그램의 제작을 1인이 하게 됨으로써 가중되는 업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었다.

최소 4~5명의 스태프(프로듀서, 카메라, 카메라 보조, 조명, 구성 작가, 운전 등)이 한 조를 이룬 ENG카메라 제작 시스템보다 1인 제작 시스템은 엄청난 비용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다. 더욱이 1인 제작시스템은 ENG카메라 제작시스템에 비해 전술한 바와 같이 지역적, 사회적 특수성을 지닌 집단에 대하여 취재원의 접근 가능성

이 자유로워졌으며, 소재와 상황시점의 시의성이 다소 해소되면서 취재에서의 진입장벽이 다소 허물어졌다는 장점도 있어, 현재 공중파 방송 교양물의 대부분이 1인 시스템을 활용할 정도로 폭넓게 확산되었다는 것이 방송계의 자체 분석이다.

이러한 시스템을 도입한 미국의 '뉴욕 1'은 CBS가 35만 달러를 들여 만든 1시간짜리 뉴스 프로그램을 단돈 1,400달러에 만들어 냈다.

'뉴욕 1'의 성공은 다른 나라로 이어졌다. 일본의 'MX TV', 영국의 '채널 1', 스위스 '쥘리히 TV'등이 뒤를 이어 1인 제작시스템을 수용하였다.

한국에서의 1인 제작시스템의 등장은 1997년 IMF의 경제 위기로 방송사들의 프로그램 제작 여건 악화로 다큐멘터리와 교양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대안으로 떠올랐으며, 소니 등에서 개발한 6mm 디지털비디오카메라의 보급은 그동안 Hi-8mm캠코더의 화질 저하로 인해 방송용으로써의 활용이 극히 제한적이었던 현실을 개선할 수 있게 됨으로 그 활용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화질의 비약적 발전과 프로그램 제작비의 절감 여건이라는 두 가지 요인이 소형 디지털 비디오카메라로 제작하는 프로그램을 방송사가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던 배경이다.

Q채널의 '아시아 리포트'이후 1999년 1월 인천방송에서 '당신의 채널'(매주 금요일 9시30분 방영)을 편성하여 일반 시청자들이 기획하고 자신들의 생각을 담은 프로그램을 소개하여 화제가 되었다. 그 후 KBS, MBC, SBS, EBS, Q채널 등이 속속 비디오저널리스트들이 활동한 프로그램을 편성하였다.

KBS는 'VJ특공대', '인간극장', '제3지대', '영상기록 병원 24시', '세계는 지금' 등과 MBC의 '현장출동 카메라 르포', '생방송 화제집중', '피자의 아침', SBS의 '휴먼 TV 아름다운 세상', '순간포착 세상의 이런 일이', '그것이 알고 싶다', '출발! 모닝와이드', 인천방송의 '경찰 24시', '생명전선', '현장 VJ 리포트', '나쁜 아이들의 세상 보기', Q채널의 '아시아 리포트' 등의 프로그램에서 적극적으로 비디오저널리스트들의 작품이 방영되었으며, 현재는 뉴스타임에서 밀착 다큐멘터리 형식이 아닌 뉴스의 한 파트로 제작 방영되고 있어 생동감이 있고, 다

소 정제되어있지는 않지만 시사보도 영상취재로 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다큐멘터리라는 딱딱한 장르에 거친 화면의 신선함을 불어넣어 시청자를 사로잡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인정받고 있다.

이렇듯 비디오저널리스트들의 취재활동은 단순한 취재를 넘어 취재 대상들과 밀착을 통해 내면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낼 수 있어, 취재가 보다 용이해졌을 뿐만 아니라 과거 단순 수용자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참여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민주적인 형태의 방송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제 텔레비전 프로그램은 현실적으로 누구나 쉽게 제작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 방송 뉴스, 다큐멘터리 제작의 보편화, 대중화를 실현할 수 있게 되었다. 방송 프로그램을 고도로 훈련된 전문 인력이 만들던 시대는 가고, 누구나 제작에 참여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도래 한 것이다.

아시아 프레스 인터내셔널 서울사무소 대표로 있는 안해룡씨는 “우리나라에 진정한 의미의 비디오저널리스트는 없다. 현재 방송계에는 두 가지의 잘못된 개념의 비디오저널리스트가 존재한다. 하나는 소형 비디오 카메라로 취재해 제작하는 PD를 비디오저널리스트라 이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일부 시사·고발 프로그램에서 AD역할을 하면서 소형 비디오카메라로 보조 취재를 하는 사람을 비디오저널리스트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상 소재를 제공하는 단순한 영상 제공자에 불과하다[7].”

이러한 정황상의 문제점으로 인해 ENG카메라와 VJ 제작 시스템 개념의 모호성이 있다고 하지만,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한 영상 소재만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개념이 별도로 존재한다. 목숨을 걸고 분쟁 지역이나 전쟁 지역에서 ‘영상’만을 취재해 방송국에 보내는 사람들이 비디오저널리스트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전부터 활동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람들은 TV방송국의 등장과 거의 같은 시기에 등장했다. Camera의 단어에서 차용하여 이들을 ‘캠 저널리스트’라는 용어로 정의하고 있다[8].

이러한 잘못된 인식의 요인으로는 1997년 IMF와 관련이 있다. 방송계에서 IMF는 결정적으로 광고 수입의

감소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프로그램 제작비가 약 30% 선으로 삭감되면서 저 예산 프로그램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 1인 제작시스템이다.

### 3. 다인(多人) 제작시스템과 1인 제작시스템

#### 3.1 다인(多人) 제작시스템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현재까지 다인 제작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연출자와 조연출이 중심이 되어 구성작가 등 연출진이 구성된 후 카메라맨, 카메라보조, 조명 등 기본적으로 6~7명의 인원이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 것이다.

다인 제작시스템은 각 파트의 분야에서 언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 예상하고, 진행상황에 따라 임무를 준비하고, 철저한 분업과 완벽한 협력 속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이다. 그래서 프로그램 제작은 연출자를 중심으로 어떤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전달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표 1. 다인(多人) 제작시스템의 장·단점

다인 제작시스템의 장·단점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li> <li>- 협업으로 인한 제작 효율성 증대</li> <li>- 제작인력의 업무하중 분담</li> <li>- 고품질 영상의 구현</li> </ul>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많은 인력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li> <li>- 많은 장비와 인력으로 인해 기동성 약화</li> <li>-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에 한계</li> <li>- 현장성 미약</li> </ul>

또한,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연출자에게 기술적인 자문이나 문제 해결 방법을 알려줄 수도 있어, 보다 다양한 화면구성과 좋은 작품을 제작하기 위해 연출자는 각 분야에 대한 자문과 촬영 아이디어를 얻어 제작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인 제작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제작에 참여해야 할 인원이 많이 필요하며, 높은 인건비로 인해 제작비에 대한 예산확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 3.2 1인 제작시스템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1인 제작시스템이 활성화된 이유는 저가(低價)의 고성능 카메라 장비와 진일보

한 컴퓨터의 보급이 그 이유일 것이다. 아날로그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인 편집 시 화질 열화에 대한 문제가 넌리니어 편집(Non-Linear Editing:비선형편집)으로 인해 일정정도 화질의 저하를 보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고성능의 소형 6mm 디지털카메라는 기동성과 밀착성이라는 부분에 있어 돋보이는 활약을 보이고 있으며, 후반 편집 작업에 있어 필요했던 고가의 편집 장비들이 한 대의 개인용 컴퓨터로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된 환경이 중요한 요인인 것이다.

표 2. 1인 제작시스템의 장·단점

1인 제작시스템의 장·단점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작의 기동성</li> <li>- 취재원과의 밀착성</li> <li>- 다양한 소재의 확대</li> <li>- 제작단계의 효율성</li> <li>- 제작경비의 경제성</li> <li>- 제작 및 취재의 시의성 확대</li> </ul>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내용의 전문성 결여</li> <li>- 프로그램의 완성도 저하</li> <li>- 프로그램의 객관성 저하</li> <li>- 촬영영상의 불안정성</li> <li>- 기획의도의 주관성으로 인한 객관성 결여</li> <li>- 영상화질의 저하</li> <li>- 고화질 영상제작의 한계</li> </ul>

1인 제작시스템의 확산은 1인이 프로그램을 제작함으로써 적은 제작인원과 소요되는 제작비용의 대폭적인 절감은 제작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인 것이다.

또한,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연출자 개인의 개성과 독창성을 최대한 살릴 수 있다는 점이다. 아이템 선정부터 구성과 촬영, 편집에 있어 혼자서 책임짐으로써 연출자의 독창성을 프로그램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프로그램 내용의 전문성은 다인 제작시스템에서 보다 결여될 수 있다. 다분야의 업무, 즉 프로그램의 구성력과 카메라 촬영, 컴퓨터 편집기술 등 혼자서 여러 제작 업무를 하게 됨으로써 야기되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요인으로 프로그램의 완성도가 저하된다는 지적이 있는 것 또한 부인 할 수 없다.

또한, 혼자서 제작하는 환경으로 인해 아이디어의 한계와 내용의 전문성 부족이 다인 제작시스템에 비해 문제로 지적 될 수 있다.

1인 제작시스템은 연출자 혼자 제작에 임함으로서 주관적인 관점에 치우칠 수 있기에 프로그램 내용의 객관성에서의 문제점을 지적 받을 수도 있다.

#### 4. 6mm 디지털카메라로 인한 제작시스템 변화

시사·교양·다큐 프로그램 제작의 모든 단계에서 인원, 장비의 간소화로 섭외가 용이해지고, 소재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또한 6mm 디지털카메라를 연출진이 항상 휴대하게 되어 사전취재와 답사가 곧바로 촬영으로 연결됨에 따라, 사전준비 작업이 축소 또는 생략되면서 제작 일정이 짧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제작단계에서의 변화는 취재 단계와 취재 후 단계로 나눠 볼 수 있다. 취재 단계에서의 변화 중 가장 두드러진 것은 촬영 관행의 변화다. 6mm 시스템에서는 카메라맨이 배제된 채, 연출진 1·2인만이 취재와 촬영에 임하게 된다. 이에 따라 카메라맨과의 커뮤니케이션 단계가 생략되었다. 언제나 연출자 혼자라도 촬영이 가능하게 되어 촬영일정도 단축되었다. 연출진이 직접 촬영할 수 있다는 것은 ENG카메라맨과 촬영할 때의 시간적 제약이 약화됨을 의미하며, 그 결과 촬영양은 ENG 촬영 때보다 2·3배 정도 늘어났다. 6mm 촬영이 ENG 촬영과 대비되는 것은 취재의 비공식성이다. 촬영의 격식이 사라진 것이다. 이러한 비공식성이 휴먼 다큐 등의 분야에서는 장점으로 부각되지만, 관공서나 권력층에의 접근은 더욱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영상과 관련된 변화다. 촬영이 연출진에게 넘어오게 됨에 따라 연출가가 원하는 영상을 구현할 수 있게 된 반면, 비전문가들이 촬영을 하다 보니 촬영영상의 안정성에는 많은 문제를 가져왔다.

표 3. SBS 6mm 제작프로그램 현황(2006년 상반기)

6mm 제작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방송 모닝와이드</li> <li>- 그것이 알고 싶다</li> <li>- SBS 스페셜</li> <li>- 우리가 바꾸는 세상</li> <li>- 열린TV 시청자세상</li> <li>-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행</li> <li>- 잘 먹고 잘 사는 법</li> <li>- 7 데이즈</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V동물농장</li> <li>- 순간포착 세상의 이런 일이</li> <li>- 긴급출동 SOS 24</li> <li>- 웰빙 맛 사랑</li> <li>- 생활의 달인</li> <li>- 시청자제도</li> <li>- 물은 생명이다</li> <li>- 생방송투데이 등</li> </ul>

[표 3]은 SBS의 경우 교양제작국에서 제작하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 6mm 제작 영상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재 후 단계에서도 변화가 일어났다. 사전취재가 줄어들어 따라 사후 구성이 강화되었다. 또한 편집 패턴도 변했는데, 촬영 양이 증가함에 따라 편집하는 시간이 길어졌으며, 거친 편집과 자막의 증가도 6mm 카메라 도입 후 일어난 현상이다.

6mm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으로 제작진의 역할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연출가들에게 가장 큰 역할 변화는 촬영을 주도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1인 제작 시스템으로 인해 연출가들의 역할이 프로그램의 직접 제작보다는 관리형의 업무를 보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6mm 카메라 촬영을 담당하는 VJ 등의 외부 인력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들을 관리하기 위해 중견 PD들이 직접 제작보다는 관리 역할로 그 업무가 바뀌고 있는 현실이다. 작가들의 경우는 VJ가 증가함에 따라 부족한 연출력을 채워주기 위해 그 역할이 강화되고, 관리를 전담하는 메인 작가의 출현을 낳았다[8].

표 4. SBS교양제작국내 6mm디지털카메라 지급현황[9]

프로그램	PD(명)	작가(명)	VJ(명)	6mm디지털 카메라(대)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4	7	7	7
생방송 TV 연예	4	6	4	4
그것이 알고 싶다	7	5	7	7
SBS 스페셜 (HD 6mm)	6	6	6	6
자연으로 돌아간 반달곰(HD 6mm)	1	3	2	3
생방송 모닝와이드	5	13	7	6
토요특집 모닝와이드	1	6	3	2
일요특집 모닝와이드	1	6	4	2
TV 동물농장	3	5	7	8
생방송 투데이	2	2		2
체인지 유	2	5		2
특집 / 기타	10			15
계	46	약 80	47	64

기존 ENG를 이용한 제작시스템에서 6mm 디지털카메라로의 전환은 방송프로그램 제작과정과 제작진의

역할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6mm 디지털카메라의 활용이 곧 시사·교양·정보프로그램 제작 환경에 영향을 미친것이라 볼 수 있다.

### 5. 독립제작사의 증가

1991년 이후부터 시행해온 방송프로그램 외주제작정책은 독립제작사를 육성함으로써 제작원의 다원화, 창구유통의 다수화, 저작권 소유구조 개선, 제작부문의 경쟁요소 도입과 같은 다양한 정책적 취지를 담고 있다 [10].

[표 5]에서 보듯이 2000년에서 2004년에 이르기까지 지상파 3사의 외주 제작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11].

표 5. 지상파방송사 연도별 외주제작비 비율 (단위:10억 원)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외주	전체	외주	전체	외주	전체	외주	전체	외주	전체
KBS	67 (9.9%)	675	77 (11%)	700	84 (30%)	280	99 (32.4%)	306	102 (29.5%)	346
MBC	35 (7.5%)	464	44 (8.1%)	540	45 (15.6%)	287	57 (25.2%)	226	39 (22.7%)	172
SBS	31 (12.2%)	254	34 (13%)	261	57 (19.7%)	289	77 (35.3%)	218	84 (31.7%)	265
계	133 (9.5%)	1,393	155 (10.3%)	1,501	186 (21.7%)	856	233 (31.1%)	750	225 (28.7%)	783

\*출처 : 2002~2005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방송위원회) 자료 재구성  
 괄호 안은 전체제작비 대비 외주제작비 점유율.

이러한 지상파방송 3사의 2004년 외주 제작비는 2,250억 원으로 전체 제작비 7,830억 원의 28.7%를 점유하기에 이르렀다. 이 수치는 2001년 전체제작비의 10.3%인 1,550억 원인데 반해 제작비 기준으로 45.1%가 증가 하였다.

표 6. 독립제작사 창업 연도별 추이(2005년 11월 현재)

97 이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계
87 15.3%	43 7.6%	80 14.1%	104 18.4%	59 10.4%	64 11.3%	60 10.6%	47 8.3%	22 3.9%	566 100%
누계	130	210	314	373	437	497	544	566	

\*출처 : 문화관광부(www.mct.go.kr), %는 전년도 대비 증가율

또한, 이런 방송제작 환경의 변화로 [표 6]에서와 같이 독립 제작사는 1997년 87개에서 2005년 11월 현재 566개사로 외주 육성정책으로 인해 양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표 7. 장르별 독립제작사 수(2005년 11월 현재)

종합	교양	다큐	만화	드라마	오락	기타	계
77	103	169	105	45	30	37	566
13.6%	18.2%	29.9%	18.6%	7.9%	5.3%	6.5%	100%

\*출처 : 문화관광부(www.mct.go.kr), %는 점유율

[표 7]은 독립제작사의 장르별 납품실적으로 교양과 다큐멘터리 분야가 48.1%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창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드라마는 7.9%로 드라마 분야에서의 외주제작 비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III. 결론

6mm 디지털카메라의 등장은 방송프로그램 제작시스템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더불어 넌리니어 편집시스템의 도입으로 인해 영상제작의 대중화를 이끌어낸 계기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 현실에서의 제작비 절감이라는 차원에서 외주 제작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과 접목되면서, 일명 VJ라는 1인 제작시스템이 확산되게 되었다.

[표 3]과 [표 6]에서와 같이 SBS의 경우 교양제작국에서 제작하는 거의 모든 프로그램에 6mm를 이용한 제작이 보편화되고 있다. 또한, [표 5]의 외주제작비율이 높아지면서 [표 6]에서와 같이 독립제작사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는 현실이다. [표 7]에서 장르별 외주제작 비율에서 교양과 다큐 프로그램의 비율이 전체 비율 중 절반에 가까운 현실이기에 1인 제작시스템을 이용한 제작이 방송프로그램의 모든 장르에서 외주제작이 활성화 된다고 보는 시사·교양·다큐 분야에서의 외주 제작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1인 제작시스템은 기동성과 촬영의 밀착성 등이 부각되어 교양·다큐 제작 등에 있어 운용의 장점으로 판단

되지만, 단점으로는 프로그램 완성도 저하 및 촬영영상의 불안정성 등을 지적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1인 제작시스템으로의 변화는 다매체·다채널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방송환경에 적응하는 하나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시스템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추가 연구과제는 현재 이러한 시스템이 정착 초기단계로써 진행형으로 지속적인 변화를 겪고 있기에, 앞으로 방송프로그램에 제작에 있어 올바른 제작시스템으로의 정착이 가능한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 참고문헌

- [1] 김대호, “미디어 융합에 따른 방송 산업 구조의 변동,” 한국방송학보, 제16권, 제4호, 2002.
- [2] 박용진, 방송통합융합시대의 콘텐츠 유통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pp.34-37, 2006.
- [3] 문상희, 디지털 영상 제작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pp.48-53, 2002.
- [4] M. Roseblum, VNI Video journalism Manual, Video News International. 1995.
- [5] 이종탁, 미디어 컨버전 현상 속에 등장한 원랜비 디오저널리즘에 관한 연구, 경일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pp.4-8, 2002.
- [6] 안해룡, 비디오저널리스트의 역사와 발전, 그리고 현황, 한국방송학회, 2001.
- [7] 안해룡, 무엇이 진정한 비디오저널리스트인가?, 서울다큐멘터리영상제 비디오저널리스트포럼, 1999.
- [8] 神保哲生, ビデオジャーナリストの挑戦,ほんの木, p.56, 1995.
- [9] 이상돈, 6mm 디지털카메라 사용이 방송프로그램 제작시스템에 미친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pp.68-71, 2006.
- [10] 김정기, 전환기의 방송정책, 한울, 2003.
- [11] 방송위원회, 2005년 방송 산업 실태조사 보고서, 방송위원회, 2005.
- [12] 김연식, “TV 프로그램에 있어서 6mm 디지털 제

작의 의미와 전망, 언론과학연구”, 제3권, 제1호, 2003.

**저자 소개**

**이 중 탁(Jong-Tak Lee)**

**정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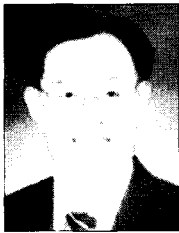


- 1991년 2월 : 대전대학교 수학과 (이학사)
- 2002년 8월 : 경일대학교 사진영상학과(미술학석사)
- 2004년 3월 ~ 현재 : 전북대학교 영상공학과(박사수료)

<관심분야> : 방송영상, 영상제작, 멀티미디어

**곽 훈 성(Hoon-Sung Kwak)**

**정회원**



- 1979년 : 전북대학교 전자공학과 (박사)
- 1981년 ~ 1982년 : 미국 텍사스 주립대학 연구교수
- 1994년 ~ 1995년 : 국가교육연구전산망 추진위원

- 1998년 : 과학기술법령정비정책위원
- 1999년 ~ 현재 : 조달청우수제품(정보통신)심사위원
- 1997년 ~ 현재 : (사)영상산업연구센터 대표
- 현재 : 전북대학교 전자정보공학부 교수 및 영상공학과(대학원) 주임교수

<관심분야> : 영상신호처리, 인공지능, 컴퓨터비전, 멀티미디어